

# 고흥군, '우주과학 테마' 독보적 여행상품 주목

### 코레일관광개발 'TOP 10' 선정 80개 상품중 '우주과학열차' 7위 "머무르는 공간 아닌 경험의 장"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도 박차

우주과학을 테마로 한 고흥군의 여행 상품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흥군은 '2024 SRT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대상'을 거머쥔 데 이어 올해 코레일관광개발 'TOP 10' 여행지로 선정됐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80여개의 여행 상품 중 여행지 순위에서 고흥군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순위는 코레일관광개발과 고흥군이 협력해 선보인 '우주과학열차' 상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고흥군은 이번 선정을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고흥이 가진 '우주'와 '자연'이

라는 두 축을 엮어낸 독창적인 관광 상품과 지역 관광 자원의 매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우주과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관광지로 풀어내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고흥군은 이를 단순한 콘셉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녹여내며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을 완성했다는 분석이다.

코레일관광개발과 고흥군은 1박2일 일정의 '별빛, 우주와 꿈을 그리다! 우주과학열차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관발사 통제동(MDC), 발사대, 레이더동, 발사체보관동, 나로우주과학관 등 나로우주센터를 견학할 수 있으며 고흥우주전문과학관, 선밸리리조트, 팔영산편백치유의숲 자연체험, 산티아고 커피농장 등도 연계돼 진행된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과학 여행이라는 기획이 여행지로서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경험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우주과학이라는 독창적인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고흥관광 1000만 시대 개막'을 위해 ㈜LF와 3000억원 규모의 골프장 및 고흥휴양빌리지, ㈜씨앤아이랜드와 5000억원 규모의 고흥 해양에슬랜드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수목원 및 미술관을 갖춘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고흥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은 지난해 4월 준공된 국내 최장 연륙 인도교인 우도 레인보우

교관광명소화, 고흥만권은 생태테마공원과 야간경관, 거금농동권은 적대봉 생태탐방로와 거금명품비단돌래길, 팔영산권은 스카이워크와 모노레일, 쪼트랙 연결, 나로도권은 우주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 산동면에 생활밀착형숲 조성 구례군, 주민 친화 공간 연출

구례군은 산동면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을 선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 생활권역 실외정원 공모사업을 신청, 지난해 생활밀착형 숲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국비 2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 주변(산동면 원촌리 31번지 일원)에 5000㎡ 규모의 숲을 조성해 최근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숲에는 구례 산동면 산수유마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산수유나무를 군락 식재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연상케 하는 홍단풍, 자엽자두, 홍가시 등 교목과 관목류를 혼용 식재했다.

수목 주변에는 수국, 버들마편초, 패랭이 등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쉼터 광장 중심에는 팽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또 화단 구조물을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책길의 경우 숲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톳길로 포장해 휴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민 친화 공간을 연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에 특색있는 주민 친화적인 숲을 조성했다"며 "도시 숲을 잘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삼현 기자

### 고흥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특약에 따라 60~100% 보장

고흥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해당 축사시설에 적용된다.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특약에 따라 60~100%까지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이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 KB, DB, 한화손해보험 4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보성군, 올해 12월 말까지

보성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점, 별교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등 4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제공된다.

농업인들은 70종 544대의 임대농기계를 임대료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임대료 50% 감면 기간 총 8688 농가가 7399대의 농기계를 이용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는 약 1억3300만원으로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군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저온,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순천시 팔마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씨름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순천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경로당, 야외광장,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전문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방문해 체육 강습을 진행, 아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의 수준에 맞춘 강습을 제공

할 수 있다. 하반기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5월 말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체육회 누리집(www.scsports.kr) 또는 전화(061-749-3519)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 오늘부터 2월12일까지 한시적 할인율 인상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한시적으로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광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충전형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이후 캐시백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설 명절맞이 소비 진작 이벤트 기간에는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이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벤트는 13일부터 오는 2월1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해당 기간 중 사용한 금액을 이후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한다.

기존과 같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

정된다. 광양사랑상품권 가입 및 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농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신한에서 할 수 있다.

정해준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이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침체된 분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대상 모집 고흥군, 29개 분야 50여억원 규모

고흥군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원예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설원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 등 29개 분야에 50억16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조생 복숭아, 애플망고 등 소득 유망 과수의 체계적 육성을 목표로 과수 재배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흑색 썩음병 예방지원,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등 병해충 예방과 효율적인 재배 시스템 보급을 통해 원예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설원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도입해 농업 경영비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고흥=심정우 기자